



자승 스님 용산참사 유가족 위로 설 연휴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선물과 위로비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원장 당선 후 참사현장에서 유가족들의 말을 듣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늦었지만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위로했다. 전제숙 씨는 "스님들의 도움에 어떻게 감사할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 행사에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 등이 함께했다. 초청된 유가족은 전제숙(해 이상림씨 미망인), 김영덕(해 양희성씨 미망인), 권명숙(해 이성수씨 미망인), 유영숙(해 윤용현씨 미망인), 김권현(해 김남경씨 부친) 등 5명이다. 이상현 기자

육군훈련소 신법당 건립 추진

군종교구, 2012년 완공 목표로 50억 모연 등 계획 발표

매년 10만 이상의 정예 불자를 사회에 배출하는 매머드급 군법당이 5월 8일 기공에 들어간다.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사진)은 2월 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증축복사를 제1사업으로 하는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군종교구는 호국연무사 옆 부지를 활용해 3500명 규모의 법보공간과 1500명 규모의 교육관 등을 완비한 다목적 공간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불교계 최대 전법 포교 도량이 되는 육군훈련소 신법당은 총 100~110억 정도의 건립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자광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군훈련소 법당은 화랑의 후예

들이 호국의 불심을 키워가는 계를 받는 중요한 곳"이라며 "차후 사단 훈련소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이 집중될 계획으로 증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연비를 해줄 통로마저 확보가 안 되는 등 너무나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이라며 "논산 훈련소 법당 건립을 위해 범불교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군훈련소 법당 증축복사는 불사추진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로 기본적인 설계안 및 모형까지 제작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막대한 불사금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군승의날 불사추진포식 이후 2달 간 현금 2억 8000여만 원, 약정을 포함해 13억 원 가량의 기금이 마련됐다. 군종교구는 우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 사업비 50억 원을

모연할 계획이다. 기공식을 기해 모금법회, 불사현장 탐방 성지순례가 진행되며, 전국 사찰, 불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후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광 스님은 "여러 종단들이 군포교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종교전쟁을 벌이는 지금,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포교에 나선다면 늦는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군포교 활동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군종교구는 △교구 조직 재정비 △군승 입대 전 교육 및 관리강화 △현역군승 보수·교육 강화 △재정 자립 모색 등 중점사업도 공개했다. 특히 입대 전 군승 자원관리에는 군승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중립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3~4일 소집 교육 등 정례교육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ews.com

東大, 美 위스콘신대 등과 협정 "학생교환 및 교류사업 확대"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미국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 River Fall), UCLA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는 "오영교 총장이 1월 27일~2월 1일 미국 내 3개 대학을 방문해 위스콘신대 벤 켈런 총장, UCLA 니콜라스 처장과 각각 만나 학생교환 및 교류사업 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동국대와 UCLA의 학술교류협정은 동국대의 대표 학술분야인 불교학, NT(나노 테크놀로지) 등을 중심으로 양 대학이 실질적인 교류

를 시행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국대와 위스콘신대는 동국대가 매년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썸머 스쿨(International Summer School)에 위스콘신대학 학생을 파견하는 등 교수·학생의 교류에 합의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오 총장은 한의학 전문대학원인 동국로얄대(DULA)의 LA 현지 캠퍼스와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스톤브룩(Stony Brook)대도 방문했다. 조동섭 기자

어머니 춤 노래에 장병 어깨 으쓱

불교여성개발원·여성불자108인회 백마부대서 공연

"어머니- 사랑합니다." 청년들의 우렁찬 함성은 공중 열었던 대지를 깰 기세였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과 여성불자108인회는 2월 6일 제1회 새해맞이 군포교 공연행사를 마련해 일산 백마부대 9사단 장병들과 함께 사랑과 감동을 나눴다. 강당을 뚫고 넘어온 함성소리를 따라 들어간 예스러운 강당에는 900여 군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불자 탭댄스 전원이 무대 위로 달려 올라가자 군인들은 일제히 "어머니!"라며 환호성으로 반갑게 맞이했다. "이효리가 와야 여러분이 좋아할 텐데 내가 왔네..."라는 전원주의 말에 "팬-썸-습니다!"라며 장병들은 힘차게 대답했다. 이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간 선우영녀는 장병들의 요청에 춤과 노래를 과감하게 선보이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대학생 악극, 아카펠라, 불교여성



신병교육 한 주를 남긴 신병들과 대학생 위문단이 장기자랑에서 자신의 숨을 겨를 발산했다.

개발원 회원과 군부대 어머니들의 공연,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내용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한 한동주 9사단 사단장은 "장병들의 사기가 상당히 고요했다"고 말했다. 공연을 마치고 사단장과 이동경 9사단 법사는 위문단들에게 현재 불사 중에 있는 9사단 법당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동경 법사는 "신교대에서는 불사 장병의 수가 월등히 많지만 자대 배치 후 법당이 없어 절반 이상이 교회에 가는 실정"이라며 법당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한 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김인숙·이인자 고문, 황수경 상임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상현 기자

진흥원, 승가대에 대원학술기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 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과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2월 9일 중앙승가대 총장실에서 대원학술기금 2차년도 기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진흥원은 중앙승가대의 창조적 학풍 진작을 통한 현대적 불교정신의 개발·보급·전파를 돕고자 2009년부터 1억 원의 대원학술기금을 전달해 왔다. 중앙승가대는 대원학술기금을 통해 △연구기관(연구자) 지원사업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오른쪽)이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에게 후원금 1억원과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학부생 지원사업 △대원학술상 및 우수 저서 및 학술논문 시상 △해의유학승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조동섭 기자

1000 뉴스

조계종 종단발전위 중단 4개년 발전계획 논의

조계종 종단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2월 1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단 4개년 발전계획 수립 결과 및 1월 추진현황 △직할교구 주지인사 고과 제도 △종단 로지 처분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신도 교육과 조직화 관련 법령 개정 △종단 4개년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종법 개정 △종단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상·영배·항적·지흥·성직·장적 스님 등 발전위원, 총무원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포교결집대회 운영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올 한해 교구본사 포교국장, 지역법회 담당 출·재가 법사, 불교대 강사, 포교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법단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전법단은 교구본사 포교국을 중심으로 직장기능, 대학생 등에 법회, 상담, 수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한편 3월 13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전국 지역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한다.

불교문화사업단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동참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밴쿠버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코리아 하우스'에서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전통불교의 맛을 알리는데 동참한다. 2월 13일 열린 코리아하우스는 대한체육회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며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국홍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설치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 아이티서 자비행 실천

조계종 의료봉사단(단장 묘장, 조계종 사회교과)이 아이티 현지 의료봉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봉사 첫날인 2월 5일 273명이 환자들을 진료받은 데 이어 조계종 봉사단의 진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봉사단을 찾아와 6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봉사단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파견 나흘째인 8일까지 조계종 봉사단의 진료소를 찾는 환자는 총 942명으로 집계됐다.

태허스님사업회 항일운동기념관 건립 모금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봉선사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을 기리는 태허스님기념사업회는 1월 25일부터 네이버(happylog.naver.com/9100ua.do) 해피로그에서 '항일운동기념관 건립 모금'을 시작했다. 이번 모금은 '운암항일운동기념관' 설립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운암청년단을 주축으로 해피빈 풍 모기회를 진행 중이다.

조계종복지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외)은 종로·중랑구에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유치해 이웃사랑 실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종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의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직원과 방문교육 지도사를 모집하는 등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卍 ○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이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되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연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준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